



2013년 2월 27일(수)

□ 미국 경제 동향

- 1) 1월중 생산자물가지수(PPI), 4개월만에 플러스 전환
- 2) 1월중 주택착공건수 예상 하회, 건축허가건수는 4.5년 만에 최대 기록
- 3) 美정부 예산 자동감축 시행시 경제성장률 1%p 감소 예상

□ 해외 경제 동향

- 1) NYT, 중국의 對美해킹 배후로 중국 인민해방군 지목
- 2) 이란, 북핵실험에 자금 및 기술 제공 의혹
- 3) EU, 對북한 추가 제재 합의

□ 산업·시장 동향

- 1) 삼성전자, 對美정부 로비 강화 위해 조엘 위깅턴 영입
- 2) 美애널리스트, 애플의 아이워치 출시할 경우 첫 해 매출 90억 달러 예상

□ 미국 경제 동향

1) 1월중 생산자물가지수(PPI), 4개월만에 플러스 전환

○ 지난 2월20일(현지시간) 미 노동부는 지난 1월중 생산자 물가지수(PPI)가 전월대비 0.2% 상승했다고 발표

- 이는 시장전망치 ‘0.3% 상승’ 을 소폭 하회하는 수준
- 한편 PPI는 지난해 10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해온바 있음

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
| | ‘12.10 | ‘12.11 | ‘12.12 | ‘13.1 |
| · 생산자 물가지수 변동추이(% , 전월비) | -0.2 | -0.4 | -0.3 | 0.2 |

○ 분야별로는 식품 및 의약품 가격이 상승, 에너지 및 자동차 가격은 하락

- 식품 가격: 지난해 12월 0.8% 하락, 1월중 0.7% 상승
- 의약품 가격: 전월비 2.5% 상승, 1년내 최대의 상승 기록
- 에너지 도매가격: 1월중 0.4% 하락, 4개월 연속 하락
- 자동차 가격: 0.8% 하락, 2010년 3월 이후 최대의 낙폭 기록

○ 한편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1월중 0.2% 상승

2) 1월중 주택착공건수 예상 하회, 건축허가건수는 4.5년 만에 최대 기록

○ 지난 2월20일(현지시간) 미상무부는 지난 1월중 주택착공건수가 전월대비 8.5% 하락한 89만 건(계절조정, 연율)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

- 이는 시장 전망치 92만 건을 하회하는 수준
- 또한 지난해 12월중 결과는 기존 95만4천 건에서 97만3천 건으로 하향 조정
- 반면, 전년동기비 24% 상승, 하지만 주택건설 호황기였던 2006년의 230만 건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

- 분야별로는 다세대가구 착공건수는 감소한 반면, 개인주택 착공건수는 소폭 상승
 - 다세대 주택 착공건수: 전월비 24% 하락한 27만7천 건 기록
 - 개인주택 착공건수: 전월비 0.8% 상승한 61만3천 건 기록('08.7이후 최대)
- 한편 지난 1월중 건축허가건수는 전월대비 1.8% 오른 92만5천 건을 기록, 지난 2008년 6월이후 최대치를 나타내며 향후 주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

3) 美정부 예산 자동감축 시행시 경제성장률 1%p 감소 예상

- 최근 미국 정부예산 자동감축(Budget Sequester) 시행이 오는 3월1일로 임박한 가운데 예산삭감의 실제 실현 여부와 이에 따른 파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
 - 예산 자동감축이 시행되면 연방 지출은 3월부터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까지 총 850억 달러의 예산이 축소
 - 또한 올해 10월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1,090억 달러의 재정이 자동적으로 삭감
- 전문가들은 예산 자동감축이 미국 경제성장률을 1%p 낮출 것으로 예상
 - 의회예산국(CBO)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.4%로 전망
 - 반면, 예산자동감축, 급여세 감면안 종료 등의 재정긴축이 없을 경우 성장률이 1.5%p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
 - JP모간도 정부의 예산자동감축 현실화 우려로 지난 주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2.1%에서 1.9%로 하향조정 한 바 있음
- 한편, 최근 월가에서는 정부의 예산자동감축안이 연기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분위기가 정치적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

□ 해외 경제 동향

1) NYT, 중국의 對美해킹 배후로 중국 인민해방군 지목

- 지난 2월19일(현지시간) 뉴욕타임스(NYT)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해킹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미 컴퓨터 보안업체인 맨디언트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보도
 - 맨디언트는 이날 NYT에 미리 배포한 60쪽짜리 보고서에서 상하이 외곽의 12층짜리 흰색 사무실 건물에서 해킹이 이뤄졌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미 정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건물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해커 부대인 61398부대 본부 건물이라고 주장
- 한편 NYT는 맨디언트가 미국내 '코멘트 크루' '상하이 그룹' 등으로 알려져 있는 중국 해킹 그룹을 처음으로 최첨단 기법을 활용해 추적해내는데 성공했다고 보도
- 이에 대해 중국 정부측은 이는 예비 결과에 기초한 근거 없는 주장이며 중국정부는 해킹 행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제정, 온라인 해커들을 엄단하고 있다고 즉각 반발

2) 이란, 북핵실험에 자금 및 기술 제공 의혹

- 지난 2월18일(현지시간) 월드트리분닷컴은 이란이 지난 12일 실시된 북한의 핵실험을 의도적으로 직접 도왔다고 보도
 - 북한의 핵실험이 곧 이란의 핵무기 시험이었으며, 당시 사용된 핵물질도 공동 제작하는 등 이란 정부의 재무적인 지원은 물론 과학적인 지원도 포함됐다는 설명
 - 또한 북한의 핵실험 당시 상당수 이란인들이 참관했던 것으로 추정됨
- 한편 북한의 핵실험이 이란에 의해 기획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공동개발이 밝혀지는 것이어서 국제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됨

3) EU, 對북한 추가 제재 합의

- 지난 2월18일(현지시간)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27개국 외무장관들은 유엔(UN)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지난달 승인한 제재안에 북한정부의 채권 및 금, 귀금속 등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 등을 추가하기로 결정
 -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월 기존 제재 리스트에 북한 우주개발 당국, 1개 은행, 4개 무역회사, 4명의 개인을 추가한 바 있음
-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해서는 금융 및 무역제재, 자산 동결, 여행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예정

□ 산업·시장 동향

1) 삼성전자, 對美정부 로비 강화 위해 조엘 위싱턴 영입

- 지난 2월19일(현지시간) 美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삼성전자가 對美정부에 대한 로비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 소니에서 10여년간 워싱턴 로비스트로 활동한 조엘 위싱턴을 영입했다고 보도
 - 삼성전자는 최근 워싱턴에 대정부 관계 업무 사무소를 열기 위해 적임자를 물색해오다 워싱턴을 최종 낙점, 워싱턴에서 로비전을 강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길 것으로 분석
- 조엘 위싱턴은 시카고 로스쿨 출신으로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상원 로비스트로 활동했으며, 지난 2001년 1월부터는 소니 미국법인에서 부사장 겸 수석 변호사로 워싱턴에서 대정부 로비를 담당한 바 있음

2) 美애널리스트, 애플의 아이워치 출시할 경우 첫 해 매출 90억 달러 예상

- 지난 2월19일(현지시간) CNBC는 투자은행 RBC캐피털마켓츠의 아밋 다라나니 애널리스트의 말을 인용, 전체 아이폰(iPhone) 구매자 가운데 35%가 아이워치를 함께 구매할 것이며, 이는 연간 90억 달러에 이르는 매출이 될 것이라고 보도

- 그는 애플이 출시 이후 1년 동안 4천만 개이상의 아이워치를 판매해 매출이 70억 달러 ~ 90억 달러에 이르며, 주당 순익이 2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
- o 한편 애플 측은 아이워치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, 반면 애널리스트들은 애플이 이르면 오는 가을에 아이워치를 출시, 개당 판매 가격은 175~200달러 선이 될 것이라고 전망